

森林資源의 保護

東國大學校 農科大學

金 昌 浩

I. 序 言

우리나라 森林은 全國土面積의 約 67%로서 國土面積比로 보아 世界에서도 上位圈에 있는 大森林國이지만 山林資源上으로 볼 때 林木蓄積量은 겨우 113,999千 m^3 로 世界에서도 가장 貧弱한 森林國에 속하며 다른나라(일본, 인도네시아, 스웨덴 등) 森林의 平均蓄積의 約 20분의 1에 相當하는 狀態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 氣候는 아시아 몬순氣候帶에 속하며 여름에는 高温多濕하고 規則的인 雨期和 乾燥期를 이루고 있으며 年平均 氣溫이 10~15℃로서 經濟林造成에 充分히 適合한 條件이다. 森林은 일시에 많은 所得이 確實히 保障되는 것이며 헤아릴 수 없는 公益的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森林循環 資料의 供給源으로 國民生活의 物資生産, 燃料供給, 國土保全, 水源涵養, 山林副産物, 家畜飼料, 野生鳥類保護, 審美的 價値 뿐만 아니라 國民의 肉體와 精神健康生活를 保持하는 데에도 매우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 이러한 森林을 주위에 造成하기 위해서는 次元 높은 經濟林으로 經營하는 참다운 意欲의인 森林投資가 必要하다. 그간 當局은 綠化 10個年 計劃으로 經濟林, 有實樹, 速成樹造林으로 山林綠化 事業에 相當한 成果를 거두어 왔으며 앞으로 國土開發과 産業振興에 커다란 希望과 自信을 주고 있지만 이 時點에서는 치밀한 計劃과 合理的이고 集約的인 經營造成 部門에서 根源을 찾아내어 是正改善하고, 새로운 經營技術을 發掘하고 計劃性있게 發展시킬 수 있는 方向을 提示하는 것이 重要한 일이라 생각된다.

II. 木材需給現況

現在 우리나라 山林의 總面積은 6,608千ha로서 林木總蓄積量은 113,999千 m^3 으로 20年生 以下の 林木蓄積이 48.2%, 20~30年生이 24.7%이며 伐採利用이 可能한 40年 以上の 林分蓄積은 全體蓄積의 12%를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木材需要量은 約 7,750千 m^3 内外로 推定되며 그 供給은 內材生産 約 1,008千 m^3 , 外材導入 約 6,141千 m^3 이고 나머지는 廢材利用(601千 m^3)으로 充當되고 있다. 우리나라 總林木材積 113,999千 m^3 에 있어서 內材供給 1,008千 m^3 은 最大限度의 伐採量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政府는 82年度 木材需要量을 前年度 需要量보다 約 10% 늘어난 8,290千 m^3 으로 推定하고 있으며 이중 內材生産 1,257千 m^3 , 外材導入 6,312千 m^3 으로 늘리는 한편 木材消費 절차와 利用度 提高와 함께 廢材 721千 m^3 을 活用할 方針으로 있다.

앞으로는 木材需給率을 內材利用을 最少限으로 줄이고 外材利用率을 늘려 우리나라 總林木蓄積을 높이는 것을 政策方向으로 삼아야겠다. 이러한 政策方向없이 伐採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森林의 蓄積增加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 問題摸索이 당면과제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木材가 內材로서 充分히 需給할 단계가 되면 森林의 保續의인 生産經營體系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III. 林業經營의 改善

現在 우리나라가 標榜하고 있는 林業經營의 目的은 木材를 自給自足하여 國家産業發展을 이룬다는 것이다.

日本에서는 울창한 森林을 가지고 있으나 막대한 外材量을 導入하여 자기 나라의 林産資源을 절약하고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점을 본받아 自給自足 될 때까지는 林業經營을 그러한 方向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荒廢林地가 많은 國家는 公益林業에 중점을 두고 당분간 木材生産이 크게 수반되지 않더라도 林産資源 蓄積面에 신경을 써야 하겠다. 사실 山林은 公害를 해소하고 溫度調節, 水源涵養과 같은 要因을 크게 緩和시키는 作用이 있다. 따라서 人間의 生活環境을 새롭고 깨끗하게 해주

는 根柢를 이루고 있는 것이 森林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公益의 林業經營 그 自體가 充分한 投資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銘心해야 한다. 利用面에서 본 우리나라 林業經營의 現實은 現實的 木材利用을 目的으로 하는 經營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林業은 天惠의 財源을 개발하는 開發林業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狀態이며 經營原則도 제대로 維持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근래에 많은 努力을 경주해 온 造成林業에 있어서 經營의 目標이 完備하지 못한 것도 事實이다. 앞으로 現實에서 脫皮하여 과감히 林業經營을 改善해 나가야 하겠다.

IV. 森林保護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森林被害中 盜獵伐이 主된 被害였으나 近來에 이르러 各種 森林火災가 더욱 큰 被害를 招來하고 있는 實情이다. 山林이 받는 被害는 그原因에 依하여 雪害, 寒害 등과 같은 氣象的 被害와 사람들의 不注意로 인한 山火, 燃料林을 採取기 위한 盜伐 등의 人爲的 被害와 森林病虫에 의한 被害 등으로 大別할 수 있다. 원래 林木은 農作物에 비하여 野生性이 크므로 모든 被害에 대한 抵抗性이 크나 自然에 露出되어 있어 所有者가 注意를 기울여 할 때에는 自然的 또는 人爲的 被害가 많이 發生하여 수십년동안 精誠을 들여 온 林木을 일시에 잃어버릴 危險이 적지 않다.

人爲的 被害에서 森林을 保護하려면 敎育과 啓蒙에 의하여 國民들로 하여금 山林의 重要性을 깊히 認識하게 하는 同時에 森林所有者는 森林保護의 길이 個人的 利益을 가져오지만 더욱 重要한 것은 國土保全과 直結된다는 觀點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 겠다.

森林病虫害의 被害에 있어서도 被害發生地를 조기에 發見하여 그 被害가 극심하지 않을 때 防除하도록 努力하여야 하며 防除의 實效와 生態系의 均衡維持를 위한 防除方法을 多樣化하고, 山火防止에 있어서도 山火多發地는 防火帶를 設置하고 山火多發期에 集中으로 警防활동을 展開하며 現代의 인 進 化 裝 비를 보 강 해 나 가 야 하 겠 다.

그리고 完備한 保護를 위해서는 全林地의 潛在의 生 産 能 力을 最 高 度로 發 揮 할 수 있는 保 護 造 林이 되어야 한다. 森林保護의 側面에서 본 다면 앞으로의 草 地 造 成 對 策에 있어서도 森林의 重 要性을 감 안 하여 원 형을 바 꾸 지 않는 범 위 내 에서 開 發 하여야 한다. 만약 森林의 有 機的 社會를 被 壞하고 自然의 均衡을 잃 게 하는 草 地 造 成이 된 다면 우리 의 森林은 草 地 造 成 으로 因 하여 더욱 荒 廢化 될 것이다.

V. 結 言

우리나라 林政의 方向은 森林保全과 經濟的, 公益的 機能維持를 도모하여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環境에 맞도록 林政方向을 決定하여 土壤保存, 水資源確保, 燃料林政策, 森林病虫害防止, 木材需給 등을 周密한 技術指導 政策을 펴야 하고 森林資源 造成計劃을 위해서는 森林에 關한 모든 事項은 計劃의 單 一化를 이 룩 하기 爲 해 서 山 林 廳 에서 다루어 지 야 한다.

그리고 草 地 造 成 10 箇 年 計劃에 있어 서 는 森林 資 源에 對 하여 큰 被害가 없 도 록 하 여 야 하 며 草 地 造 成에 適 合한 山地는 主 도 變 換한 調 整을 實 施한 後에 신 중히 決定 해야 할 것 이 다. 計劃性 없이 草 地 造 成을 무 리 하게 행 한 다 면 國 土의 荒 廢는 加 速 化 될 것 이 며 돌 이 질 수 없 는 問題가 惹 起 될 것 이 다.